

< 제 11 장 >

요 11:1-45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이며 동시에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장면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우리의 친구”라 불릴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포함된 사건이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으나, 그 믿음은 아직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신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마리아 역시 같은 고백을 하였으나 현실의 슬픔 앞에서 머뭇거렸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와 교사로는 인식하였으나,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로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계시의 자리였다.

눅10장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διακονία,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택하였고, 마리아는 “좋은 편”(μερίς, 메리스)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란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과 함께 ‘뉘’, ‘분깃’, 곧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은 행동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은사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두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ἀφαίρεω, 아파이레오)이라 하셨는데, 이는 말씀 안에서 형성된 믿음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섬김은 분주함 속에서 흔들릴 수 있으나, 말씀 안에 앉아 형성된 신뢰는 삶의 중심을 지탱한다.

훗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동은(요12:3) 단순히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 형성된 깊은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였다.

그러므로 그 헌신은 충동이 아니라 축적된 믿음의 열매였고, 순간적 감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라난 결단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곧장 가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곧장 가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 가신 이유는, “4절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는 일이며,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눈앞의 슬픔보다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고, 실제로 나사로 사건 이후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한 도구였으며, 개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부활이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실재이며, 생명 또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믿음의 초점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또한 무덤 앞에서 드리신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전제로 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아직 돌이 옮겨지기 전이었으나,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 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며 믿음을 현재의 고백에서 절대적 신뢰로 이끄는 계시의 사건이다.

요 11:47-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다.

그들의 염려는 겉으로는 민족과 성전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더 이상 단순한 교리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힌 현실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나사로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53절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생명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나타내신 사건이 오히려 십자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나, 진리를 따르기보다 체제를 지키는 길을 택하였다.

나사로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표적이었지만, 권력을 붙든 자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의 의미>

1. πίστις (피스티스, Faith)

‘πίστις’는 신뢰, 확신, 신실함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πίστις’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참되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막연한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신뢰이다.

2. πιστός (피스토스)

‘πιστός’는 “신실한”, “믿을 만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신뢰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며,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πιστός’는 단회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뢰의 상태를 의미한다.

3. πιστεύω (피스튜오, Believe)

‘πιστεύω’는 “믿다”, “신뢰하다”, “의탁하다”라는 동사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믿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참된 믿음은 ‘신뢰’(πίστις)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말김이 지속되는 상태(πιστός) 안에서,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πιστεύω)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신뢰에서 시작되어 순종으로 드러나는 살아 있는 관계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 없이도 종교적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 없는 행위는 본질을 잃는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며, 그 구원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져 간다.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고, 맡긴 대상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요구된 ‘믿음’은 이미 형성된 신뢰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유대인들과 무리의 ‘믿음’은 아직 신뢰로 나아가지 못한 보편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초기의 믿음을 통해 점차 참된 신뢰로 이끄신다.

<롬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믿어”(πιστεύεται)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입술의 고백은 그 내적 신뢰가 외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비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때로는 “Yes”일 수 있고, 때로는 “No”일 수 있으며, 때로는 “Waiting”, 곧 기다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유익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필요를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Yes”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을 뿐이다.

기도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응답은 “Waiting”, 곧 기다림이다.

그러나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러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들으시고도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으며,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다.

만일 즉시 고쳐 주셨다면 치유의 능력은 드러났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셨다.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또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섭리였고,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믿음을 위한 준비였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No”로 응답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방식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죽음의 현실 속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장이다.

나사로의 무덤은 인간에게는 끝과 절망의 자리였으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목적이었고, 침묵은 더 큰 계시를 위한 준비였다.

표면적인 해결을 넘어, 더 깊은 믿음과 영광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실재이며, 믿음은 그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장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의 차원에서 절대적 신뢰로 이끄는 계시의 장이다. 무덤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에 머물지만,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